

【연구논문】

과학소설 『눈먼 시계공』을 통해 본 테크노 혼종성과 포스트휴먼 위기 징후

김준년

(홍익대)

I. 혼종성의 비평이론적 계보

혼종성(hybridity)이라는 비평 용어는 탈식민주의 이론, 문화연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담론 등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복합적 조건과 문화 생성에서의 다원적 원리를 설명하고 표방하기 위해 활성화된 개념이다. 혼종성의 비평가는 안으로 잡종 또는 혼종이라는 현상에 내포된 부정적인 의미를 극복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구축해야 하는 동시에 밖으로 제국주의, 고급문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의 배타성을 타개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전략을 수행해왔다. 다문화주의와 소수민족 담론의 부상과 때를 맞추어, 미국 흑인문학 비평에 유통되기 시작한 혼종성 개념은 오랫동안 미국 흑인의 정신을 지배한 본질론적 인종관과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성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혼종 혹은 혼종성이 실제 적용된 구체적인 텍스트를 간략히 짚어 보면, 이 개념의 비평이론적 맥락과 잠재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태생의 버밍엄 문화연구 이론가

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1990년에 발표한 「문화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에서, 민권운동 이후 미국의 인종 관계 전반에 다각적인 구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미국 흑인문학 담론에서도 “본질과 순혈성이 아니라 이질성과 혼종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재정의되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했다(“Cultural Identity” 402). 카리브해의 영국령 가이아나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영국흑인 문화연구 비평가인 폴 길로이(Paul Gilroy)도 『검은 대서양』(*The Black Atlantic*, 1993)에서, 환대서양 전역에 초국가적으로 분포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문화의 “혼종성과 혼성화”에 주목함으로써 미국 흑인문학의 국가중심적 비평 경향을 재평가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논평한 바 있다(199). 미국흑인 소설가 이스마엘 리드(Ishmael Reed)는 홀과 길로이가 선도한 탈식민주의 흑인 디아스포라 비평이론이 미국 학계에 정착되기 이전에 미국의 인종정치학과 미국흑인의 문화 정체성을 혼종적 관점에서 풍자적으로 재구성한 『뎀보 점보』(*Mumbo Jumbo*, 1972)를 세상에 내놓았다. 인도 태생의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를 연상시키는 수사적인 어조로 “혼종성은 이단이다”(225)라고 읊조린 뒤, 단 불경을 꿈꾸는 이단이며 불경을 금지하는 모든 권위와 정통에 저항하는 이단이라고 덧붙였다. 혼종성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지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는 미국 문학 및 문화 비평에서 이른바 ‘경계넘기’ 담론을 촉발한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시대/국경』(*Borderlands/La Frontera*, 1987)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당선을 계기로, 백여 년 전 찰스 체스넛(Charles Chesnut)의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에서와는 180도 달라진 양상으로 전개된 혼혈 미국인의 정체성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한 미셸 엘람(Michele Elam)의 『혼혈 흑인의 영혼』(*The Souls of Mixed Folk*, 2011)도 혼종성의 동시대적 변용을 시의성 있게 간파한 비평서이다. 이상 아주 대략적으로 미국의 마이너리티 담론에서 혼종성이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 훑어보았다.

필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과학 시대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포스트휴먼 주류 담론의 장에 혼종성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려면 비평적 거리를 좁힐 가교가 되어줄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혼종성에 관해 유의미한 기록을 남긴 철학자와 과학자를 찾아 그들의 사유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혼종성의 비평이론적 계보를 더욱 혼종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브라이언 머수미(Brian Massumi)는 운동의 성질, 신경학과 체성 감각, 보철물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과학과 과학의 미래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진 탈구조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저서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2002)는 이러한 관심사를 좇는 그의 사유가 복잡다단하게 뻗어 나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머수미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과학에 말을 거는데, “과학의 계보에는 가십거리가 끼어들기 마련”(Parables 214)이라는 의견 표명이 그중의 하나이다. 머수미는 “과학의 역사는 우연적 사건, 상식, 가십거리와의 계통적 연계로 인해 항상 ‘더러워’ 진다”(Parables 215)는 부연설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보강한다. 여기서 더러워진다는 말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뒤섞여 순혈성을 잃는 대신 혼종적 성질을 얻는다는 의미를 통속적으로 던진 표현이다. 필자가 이 단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혼종성 또는 강도를 조금 누그러뜨린 용어로 혼성성을 존재론의 일원으로 등재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미국의 소수민족 비평이나 영미권의 탈식민주의 담론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정동의 철학자 머수미나 과학(기술)학의 집대성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와 같이 비문학계의 주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관점이라는 점을 방증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포스트휴먼 미래 사회의 기술과학이 인간 또는 비인간 존재와 접촉하는 양식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테크노 혼종성에 의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이다.

머수미가 보는 과학의 계보에서 새로운 기술적 대상의 탄생 과정은 단

선적인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매듭투성이에다 때로 난도질당한 채로 나타났다가 뜻밖의 놀라움의 문턱을 넘곤 하는 것이다”(Parables 215). 그는 이런 과학사의 혼종성을 서구 지성사와 대담하게 대비시킨다. “과학의 역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그것의 맥락과 상황도 결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는 ‘지성의 역사’ 속에 포섭될 수 없다”(Parables 215). 머수미의 비판에서 한 발짝 더 내디디면, 유럽·백인·남성 중심의 지성사는 지성의 배타적 순도를 숭상하며 스스로를 높고 먼 성곽처럼 축조해왔음이 보인다.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에도 이단을 위한 자리가 늘 예비되어 있었건만 서구 철학과 사상에서 반지성이 분기하여 파리를 트는 경우는 종교적 이단보다 훨씬 더 희귀했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지성의 풍토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아예 있는 취급을 하지 않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시 제대로 배워 오라고 훈시하곤 했다. 다르게 배워 온 자에게 제대로 배워 오라는 말만 반복해온 것이다.

머수미는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의 역사를 꿰뚫어 본 철학자였지만 과학을 전적으로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즉, 양 진영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과학 전쟁(science wars)을 중재하려 하기보다는 과학을 ‘넘보는’ 포스트모던 인문학자들을 경시하는 과학계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이에 소칼 사건(Sokal hoax)으로 유명세를 탄 앨런 소칼(Alan Sokal),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과 같은 “과학의 전사들”이 고수하는 경험과학이 실은 거장의 권위를 업고 합리적 경험주의를 넘어 암묵적 “신학-되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Parables 248). 과학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완결성을 고수한다면, 신학적이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신뢰하는 철학자로서 “과학과 철학은 공생적인 활동이다”(Parables 245)라고 선언하는 머수미는 빼 있는 비유로 과학을 위한 조언을 대신한다. “과학자들이 공포소설의 주인공이라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이 도망이 멈출 때 시작된다. 겁에 질린 주인공이 뒤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달아나 자신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수 있을 때, 과학은 시작된다”(Parables 232-33). 과학은 학제의 태생적 성격상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놀라움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익히고 “놀라움에 직면하면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공간 안으로 도망가는” 특이한 선택을 한다. 머수미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과학적 방법론이란 놀라움에 직면하여 [어떻게든, 과거에 축적된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다 뒤져서라도] 냉정함을 유지하려는 제도화된 방식”(Parables 233)이라고 풀이한다. 이 목계적 대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놀라운 사건이 발발한 어떤 상황에서 그 놀라움이 “기성-지식을 통해, 즉 기성-지식을 통틀어, 사전 맥락화”(Parables 233)되지 않으면, 그 놀라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급기야 과학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전통적 수순을 밟는다. 그럼으로써 “과학은 나름 유용하게 자신의 경험주의를 한정해왔는데”(Parables 239), 머수미는 더는 이르지 못하고 과학에게 제안한다.

[과학과 철학은] 애초부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반영하고 있다. 과학은 명확하게 철학의 출발점을 변조한다. 철학은 그 귀환불능 지점에서 무시무시한 뒷걸음질을 넘어 과학을 변조한다. 과학과 철학은 심지어 “전쟁”을 선포할 때조차도 절차적으로 서로를 보완한다. “두 개의 문화”는 없다. 같은 자연-문화 연속체를 능숙하게 다루는 두 개의 (실제로는 다수의) 공정 라인이 있을 뿐이다. 양 “측”은 서로의 리얼리티를 공유하는 관념에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 점이 바로 둘이 이미 관여하는 바인 것이다. (필자 강조)

They naturally, continuously feed into each other, in different ways. Science definitionally modulates philosophy’s point of departure. Philosophy modulates science across its horrified recoil at its point of return. Science and philosophy processually complement each other,

even in times of declared “war.” *There are not “two cultures.”* There are two (actually many) process lines plying the same nature-culture continuum. Both “sides” should accustom themselves to the idea of sharing their reality. In any case, that is what they are already engaged in. (*Parables* 245; emphasis added)

머수미는 C. P. 스노우(Snow)가 제기한 이래 과학의 인문학 간의 길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회자되어온 “두 문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과학을 초대한다. 때로 과학이 과학적 지식의 내재적 한계에 이르러 머뭇거릴 때, 철학은 과학이 진입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가상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과학자의 눈에 가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생성에 의해 존재가 되고 마침내 진입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머수미는 이를 “철학은 과학이 되돌아 나오는 곳에서 나아간다”(Parables 240)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철학은 “미결정적이지만 가능성을 향한 적극적 잠재성”(Parables 241), 즉 “존재하게-될-잠재에 대한 개념적 암중모색”(Parables 242)을 목표할 수 있다. 때로 그가 소환하는 과학은 반대측 (상황에 따라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는) 증인이지만, 그 증인으로부터 꼭 불리하지만은 않은 증언을 유도해낼 수 있다. 머수미에 따르면, 과학과 철학의 대질 혹은 조우와 관련하여 이 둘을 가장 실질적으로 매개한 것이 카오스 이론이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카오스 이론을 사이에 두고 과학과 철학이 서로 의도치 않게 공유한 지분이 “개연성—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의 수학적 표현” 또는 “개연성의 삭제 불가능성”이다(Parables 244). 머수미는 바로 이런 취지를 백분 살려 과학과 철학은 처음부터 공생적인 관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철학의 본질을 관계성에서 찾는 머수미의 관점에서, 관계성이 개별성의 각각의 정의에 선재한다면, 혼종성은 순혈성의 사생아가 아니라 순혈성이 혼종성의 돌연변이가 된다. 이 맥락에서 “과학의 ‘날’(raw) 대상들

은 이미 자연-문화의 ‘혼종들’(hybrids)이다”(Parables 236 재인용)라고 했던 라투르의 통찰이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라투르를 읽어보면, 그의 세계관이 푸코와 데리다 못지않게 서구에 대한 자아비판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We Have Never Been Modern, 1993)에서 라투르는 서구인들이 두 번의 “대분할”(Great Divide)을 통해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근대인”으로 등극하게 된 과정을 침착하게 폭로한다. 첫 번째 대분할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 또는 인간적인 것들과 비인간적인 것들 간의 차별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대분할을 정의하며 라투르 자신은 ‘원인이자 결과’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분할이 원인이고 차별이 결과가 된 역사적 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역으로 차이가 원인이고 분할이 결과일 수 있는 연유는, 다른 맥락에서 그가 설명했듯, “[서구의] 근대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야 했으므로 그들을 전근대인들과 구분하는 대분할을 발명해야만 했다”(We Have 39). 엄밀히 말해 대분할 자체도 서구인들의 작위적인 발상이었다는 말이다. 어쨌든 첫 번째 대분할을 통해 자연과 문화 혹은 자연과 사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근대 서구인들은 “우리-서양인과 그들—타 종족들”을 나누는 두 번째 대분할을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었다. 라투르는 “두 번째 대분할은 첫 번째 대분할을 외부로 수출한 것”이라고 기술한다. 물론 과학학(Science Studies)이라는 새로운 학제의 대가로 평가받는 라투르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다른 무역상들이나 정복자들과는 달리, 근대 서구인들은 무역과 정복, 약탈과 지배에만 만족하지 않았고 ... 그것들과 전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위인 과학을 발명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는다(We Have 97).

과학의 발명은 양가적인 사실임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라투르가 분석한 두 번의 대분할이 백인과 비백인을 차등화하는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생명관리권력(bio-power)을 키워낸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그의 저서의 제목이 전하는 의미심장한 역설이 더 탄력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초안하고 서구인과 타자들의 이원화를 승인한 것이 근대 입헌원리(Constitution)였다면, 서구인이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정치적 가설을 세움으로써 대분할의 틀에서 벗어나 이른바 혼성적 입장에서 근대가 배태한 문제점들을 재고하자는 것이 그의 대안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설이 근대인의 존립 근거와 위업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는 “반근대인들”이 고수한 반혁명적이고 수성적인 태도를 혼성적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반근대인들은 어떠한 혁신에도 무능한 근대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We Have* 134-35). 여기서 라투르의 ‘하이브리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참고할 수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서구 근대인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라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로 재편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상호 관계 속에서 혼성적인 행위가 생겨난다는 관점으로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통해 라투르가 궁구하는 사회 모델은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체(a collective of humans and nonhumans)인데, 그가 정의하는 비인간이란 기계, 자동기계, 장치와 같은 인공물을 지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주체에 의해 알려지는 객체나 [인간] 주인에 의해 조종되는 대상으로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의 이론에서 “행위는 단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소의 연합의 특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인간도 당연히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상호 복합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이 기술적으로, 나아가 사회기술적으로 매개되는 혼성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Pandora's Hope* 182-85). 라투르가 드는 과속방지턱이라는 예는 이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불어로 ‘잠자는 경찰’이라 불리는 과속방지턱은 비인간에 해당하지만, 인간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로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

를 줄이게 강제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속도를 줄여 차의 서스펜션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속도제한 표지판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변형한다는 것이다(*Pandora's Hope* 186-87). 여기서 과속방지턱은 좁게는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공물로 볼 수 있지만, 넓게는 “설치에 관계한 총장, 법률 입안자, 기술자 각각의 의지와 구상에 자갈, 콘크리트, 페인트, 표준 공정이 더해져 결성된 것”(Pandora's Hope 190)으로서 인간과 비인간이 매개된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복수의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혼종적 매개의 결과물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라투르가 딱 한 줄로 정곡을 찌르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바로 “보잉 747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나는 것이다”(193)라는 진술이다.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대립, 상극, 위계의 틀에서 보기를 중단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사회기술적으로 매개된 새로운 혼종화를 추구하는 라투르의 입장은 비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태와 위상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간적인 것은 입헌원리에 있어 비인간적인 것의 반대 극이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두 표현은 또 다른 차원을 지시하기에 더 이상 충분치 않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 ‘인간형태의’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성을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말이다. 우리는 형태주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야만 한다. 형태주의란 기술형태주의, 동물형태주의, 물리형태주의, 관념형태주의, 신형태주의, 사회형태주의, 심리형태주의 모두가 수렴되는 곳이다. 이들 간의 동맹관계와 교환관계가 모두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주의를 모두 연결짓는 자가 바로 인간이다. [...] 인간의 형태를 그것이 한데 휘저어 놓은 다른 형태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는 휴머니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된다.

The human is not a constitutional pole to be opposed to that of the nonhuman. The two expression ‘humans’ and ‘nonhumans’ are belated

results that no longer suffice to designate the other dimension. . . . The expression ‘anthropomorphic’ considerably underestimates our humanity. We should be talking about morphism. Morphism is the place where technomorphisms, zoomorphisms, phusimorphisms, ideomorphisms, theomorphisms, sociomorphisms, psychomorphisms, all come together. The alliances and their exchanges, taken together, are what define the anthropo. A weaver of morphisms — isn’t that enough of a definition? . . . By seeking to isolate its form from those it churns together, one does not defend humanism, one loses it. (*We Have Never Been Modern* 137)

이 단락의 키워드를 두 개 찾으려면 ‘인간형태의’(anthropomorphic)와 ‘형태주의’(morphism)를 꼽을 수 있다. 라투르는 비인간 행위자를 인간 행위자의 대칭점에 두는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형태를 표준적이고 모범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온 신인동형론과 의인관을 폐기처분하고 인간중심적 형태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면 인간성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고 덤으로 휴머니즘도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이다. 맞는 말이다. 이는 캐서린 헤일스(N. Katherine Hayles)나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와 같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비평이론가들의 탈인간중심적 종평등주의와도 사유의 맥이 닿는다. 그렇기에 라투르의 제안에 누락된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적 형태주의에 몰입한 주체는 그가 말하는 서구인, 즉 서구의 전근대인들과 근대인들을 일컫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과학을 발명하고 대분할을 성취한 백인남성 파워엘리트 집단이다. 그들의 인간중심주의의 이면에는 백인이 중심이고 남성이 중심이라는 의식이 이미 깔려있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려면 인간 행위자의 자리에 근대성의 잔재인 백인 남성성을 배려할 공간이 없음을 확약하고, 비인간 행위자의 자리에 이미 존재하는 사물 기계나 동식물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새롭게 발견·발명될 신물질, 신기술 및 포스트휴먼 사이보그와 로봇까지 가

입이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눈을 가리는 누락이나 계층을 나누는 배제가 없는 투명한 공간에서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공존하며 타협점을 모색하는 담론이 성사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라투르의 “하이브리드” 개념과 머수미의 “더러워진” 혼종성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라투르의 개념은 처음부터 추상화의 방패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종들의 실재성을 전제하는 ‘혼종성’보다는 성질의 복수적 혼재를 뜻하는 ‘혼성성’으로 이해되기 쉽고 그런 탓에 주류 학풍에 물든 한국의 번역자들은 후자를 선호한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머수미도 혼종성을 주로 논하는 담론 공간이 과학과 과학사 영역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비껴나간다. 하지만 도래하게-될-잠재는 혼종적일 것이라고 믿는 머수미의 공생적 사유와 인간과 비인간의 혼성적 형태주의를 주창하는 라투르의 대칭적 사유는 접근방식의 성격상 필연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조우 공간이 서서히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휴먼 사회이다. 또한 사유의 성격상 머수미의 과학 철학과 라투르의 과학기술학은 테크노 혼종성이라는 명패를 붙일 수 있는 교집합을 가지게 되는데,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이 개념화한 “인간-기계 앙상블”이 그 교집합의 무게감 있는 원소로 등재될 수 있다. 김재희에 의하면, 시몽동은 하이브리드나 포스트휴머니즘을 거론한 적은 없으나, 그의 ‘인간-기계 앙상블’ 개념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을 “인간중심적인 지배-피지배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평등 관계”로 혼성화함으로써 “사이보그 개체들의 집합체로 환원되지 않는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한다(13). 머수미와 라투르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종종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을 인용하는데, 이들이 공유하는 인간관, 즉 인간을 인간 아닌 다른 무엇과 연결 또는 결합함으로써 무한한 잠재성을 실현하는 열려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이 논문의 본론인 다음 절에서 개진할 포스트휴먼 시대의 테크노 혼종성과 차세대 인류의 약속과 위기를 분석하는 작업에 유용한 이론적 단서이자 근거가 된다.

II. 21세기 혼종적 주체와 테크노 풍경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SF 소설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국에서 포스트휴먼 조건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될 테크노 혼종성을 깊이 있게 파헤친 소설 한 권이 발표되었다. 그가 신이든 시계공이든 간에 진화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화생물학적 주장을 전개한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 1986)에서 제목을 따 온 동명의 소설이다. 소설 『눈먼 시계공』의 태생적 혼종성은 이 작품이 앞서 언급된 대립적 “두 문화,” 즉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뇌과학자 정재승과 인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탁환이 공동 창작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눈먼 시계공』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인간 몸과 기계 몸이 혼종적으로 결합된 사이보그성을 체현하는데, 흥미롭게도 그런 사이보그 인물들의 호칭도 남앨리스와 서사라와 같이 한국식 성과 영미식 이름이 혼합되어 있다. 물론 남앨리스와 서사라는 사이보그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혼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혼종적 명칭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소설의 주인공 격인 은석범은 사이보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라는 단일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 그의 이름에 혼종성의 자취는 없다.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소설이 혼종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한국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혼종성이 강한 여성 두 명을 보조적 인물로 설정한 점은 공저자의 젠더 편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눈먼 시계공』의 배경 또한 테크노 혼종성이 일상적 수준으로 번진 21세기 중반 포스트휴먼 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또 그런 수준의 개연성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술과학적 지식정보의 기둥들이 플롯 사이사이에 준비하다. 소설의 배경은 2049년 서울이다. SF 장르에 친숙하지 않은 한국의 독자를 의식한 듯 『눈먼 시계공』은 굳이 번역하자면 공상과학소설보다는 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정도로 현실성과

핍진성이 높다. 예컨대 같은 시간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 2017)에는 2019년이 배경인 전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울한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에 비행 자동차가 너무 일찍 상용화되어 있다. 반면 『눈먼 시계공』의 서울에는 지하 도로망과 무인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된 정도이다. “지하 도로는 4차선. 그중 2차선은 ‘자동 도로’여서 자동차가 ‘자동 모드’로 알아서 일정 속도로 차간 간격을 조절하며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장착되었다. 용무가 급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자동 모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에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즐긴다”(1: 247). 이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2002)에서 2054년 워싱턴 D.C.에 자기부상 자동차(electro-magnetic cars) 도로망이 구축된 경우보다 개연성이 더 높은 설정이다.

배경의 현실성과 핍진성에서 SF 독자가 아니라 과학자가 수궁할 정도로 안전한 수준에 머무는 또 다른 예로, (현재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 초소형 인공지능 칩을 대뇌 피질에 이식하는 기술이라든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Brain Machine Interface) 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 Computer Interface) 기술이 개발되어 민간 사용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테크노 풍경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몸 안에 미세 정보 처리칩MCC을 심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특별시 연합법에서는 이 미세 정보 처리칩MCC을 뇌에서 적어도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신체에 심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고 쾌락이 최단 시간에 뇌에 닿기를 원하는 마니아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개인용 컴퓨터에 버금가는 MCC를 바로 뒷머리에 심었다”(2: 57). 소설의 공저자 정재승과 김탁환은 이 첨단기술의 오남용으로 두피까지 타버리는 사망 사건을 다룸으로써 인간 욕망의 부작용이 연출하는 미래 사회의 어두운 이면까지 보여주지만, 어느 경우든 이러한 배경 설정은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나 일론 머스크

(Elon Musk)가 선도하는 연구진이 2030년까지는 실현될 것이라고 보증하는 BCI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눈먼 시계공』에는 서사구조의 개연성을 강화하는 과학지식이 플롯의 요충지마다 백과사전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 발견되는 의외의 수확은 생똥맛을 정도로 이채로운 혼종적 인물 설정이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서울특별시 보안청 특별 수사대 소속 스티머스 수사팀 초대 팀장인 은석범 검사이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1968)의 주인공인 현상급 사냥꾼 릭 데커드(Rick Deckard)가 인간의 통제에서 도주한 안드로이드를 추적하듯,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의 동명의 주인공인 LA 경찰의 특수요원이 레플리컨트라고 명명된 복제 인간을 추적하는 상황 설정과 유사하게, 은석범 수사관도 두뇌 연쇄 탈취 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한 배후로 지목된 반인반수의 제노사이보그 집단을 뒤쫓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77퍼센트 천연 몸”(1: 71)을 가진 인간으로 소개된다. “100미터를 6초에 주파할” 수 있는 “워릭 아이언슈즈”라고 불리는 기계발이 나머지 23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보철공학적 사이보그로 볼 수 있다(1: 64). 비율상으로 보면 은석범은 비교적 덜 혼종적인, 아직은 여유있게 ‘인간’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이보그 사회의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든 “기계 몸이 70퍼센트에 이르면 특별시 위생청에 출석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인권을 인정하고 특별시민권을 계속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 대리인 필요’ 판정을 내려 특별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박탈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 특별시 위생청은 기계 대체율 70퍼센트 이상인 사이보그들에겐 정밀 검사 후 대체로 참정권, 선거권 등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무 집행 등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을 가한다. 특별시 위생청의 정밀 검사는 대개 열에 아홉에게 시민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기계 몸이 60퍼센트를 넘어가는 이들은 질병이나 부상을 무척 조심했다”(1:

295-96).

남엘리스는 은석범이 이끄는 스티머스 수사팀의 동료 여형사인데 바로 이 사이보그 인권제한법에 저촉되는 포스트휴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는 인물이다. 남 형사는 소설 초입의 등장 인물란에 “하얀 피부, 초록 눈동자에 갈색 단발머리의 혼혈 백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공공롭게 도은 검사와 똑같이 “23퍼센트가 기계 몸이다”(1: 295). 다만 텍스트는 그녀의 혼혈 백인성의 기원과 추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의 신체에서 인종이 체현되지만 그녀의 인종 정체성이 의미화되지는 않는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남 형사는 두뇌 탈취 범죄의 혐의자인 제노사이보그들을 검거하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로 잠입하는데 사이보그 범인과의 결투 도중에 건물이 붕괴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다. 하지만 이 사고로 온몸을 다친 그녀는 “75퍼센트의 기계 대체율을 가진 사이보그”(2: 342)가 되고 만다. 남 형사는 75퍼센트 사이보그의 몸으로 이후 열리게 되는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다. 몸의 70퍼센트 이상이 기계로 대체된 사이보그의 경우, 공민권의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로봇의 증언 출석에 대한 법률”이 발효 되면서 그녀도 증인이 될 수 있었다(2: 337). 사실 그녀는 두뇌 탈취 사건의 전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사고 후에도 100퍼센트 인간의 두뇌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피고 측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심문으로 그녀에게서 인간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주력한다. “2049년 현재까지 총 4332건의 심사가 있었지만 75퍼센트 사이보그에게 단 한 번도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웬지 아십니까? 기계 대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이 어렵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실험실 연구로도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로봇이라면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증언을 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은 사람도 로봇도 아닌 사이보그입니다. 사건에 대해 결정적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75퍼센트 사이보그

의 주장은 특별시 연합 법정에선 채택될 수 없는 증언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2: 341). 이 변론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포스트휴먼 사회의 다수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테크노 혼종적 사이보그가 인간과 로봇 사이에 끼어 공민적 타자로 전락하고 새롭게 축조된 경계 바깥으로 공민적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예고함으로써, 경계의 와해를 예찬한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선언문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 소설에서 은 검사나 사고 후의 남 형사는 자신의 사이보그성이나 인간 신체의 사이보그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물의 의식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장르 소설의 한계이겠지만, 대신 사이보그 실재성의 신랄한 단면과 어두운 이면은 소설 곳곳에서 배경 상황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이보그는 몸의 일부라도 기계로 대체된 존재를 말한다. 어떤 이는 겨우 3퍼센트 기계 몸으로 자신을 사이보그로 간주했고, 어떤 이는 70퍼센트 가까이를 채우고도 자신이 사이보그라는 사실을 경멸했다. 경계가 모호하니 오해와 불신도 커졌다”(1: 67). 이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식을 반영하듯, 사이보그 거리의 어느 호텔은 “중세 유럽의 성문을 닮은 우뚝 솟은 대문에 기계 몸 40퍼센트 이하 출입 엄금”이라고 적힌 냉소적인 경고판을 내걸었다. “60퍼센트 이상 천연 몸은 접근 말고 꺼지라는 위협이었다”(1: 63). 사이보그 거리에는 범죄 또한 끊이질 않았다. 그곳을 찾는 사이보그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무엇보다 사이보그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계 몸과 천연 몸의 완벽한 결합은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값싼 미등록 재활용 기계 몸을 부착한 이들은 열흘에 한두 번씩 접합 부위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다. 통증을 멈추려면 [사이보그용 진통제를 구입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이든 강도질이든 살인이든 마다하지 않았다”(1: 66-7). 여기서 우리는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던져 동물 담론의 분수령이 된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이보그

도 고통을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변조되어 포스트휴먼 시대에 호명될 사이보그의 정의에 관한 변곡점이 되는 조짐을 목격한다.

『눈먼 시계공』에 등장하는 테크노 혼종적 인물 가운데, ‘사이보그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좀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통증이 통증으로 인지되는 의식 지각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지적 답변을 주는 두 존재가 더 있다. 소설의 발단부터 인간보다 기계의 비율이 높은 63퍼센트 사이보그로 등장해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기계 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다가 마침내 화재 사건 현장에서 남엘리스 형사를 구하고 산화하는 흑인여성 서사라 그리고 극비리에 인간의 뇌가 이식되어 세계 로봇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는 글라슈트라는 이름의 한국 국가대표 로봇이 그 둘이다. 이 과학소설의 플롯은 두 개의 굽직한 서사 축이 이끌어 가는데 그중 하나가 이미 언급한 두뇌 탈취 살인범을 쫓는 미스터리 스릴러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틀원 2049라는 로봇 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각국의 로봇들이 연출하는 액션이다. 서사라는 로봇 테크놀로지의 각축장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최볼테르 연구팀에서 로봇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 즉 기술팀이 글라슈트에게 무술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대련 자세를 하나하나 지시해주는 “무술 코치, 태권을 기본으로 한 신종 무술 W의 달인”으로 소개된다. 그런데 흑인여성으로 체현된 사이보그 인물인 서 트레이너가 야간에는 바디 바자르라는 성인 클럽에서 “반 벌거숭이 흑인 무희”(1: 68)로 겸업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볼테르의 차세대 로봇 연구센터에서 더 많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면 불법 도박성 사이보그 격투기에 출전해 운동으로 단련된 자신의 신체의 파괴력을 매매한다.

위와 같은 인물 설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미디어와 텍스트에서 흑인 여성에게 상투적으로 투사되어온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를 아우르는 고정관념이 한국땅에서 서사라에게 여과 없이 재현되어 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 유독 서사라의 이미지가 신체의 물리적 역량에 집중되

어 묘사되고, 더욱이 흑인으로서 그녀의 강인한 육체가 논리적으로 너무나 허술하게 성적 함의를 동반하게끔 연출되어 있다. 문화연구 비평가 스텐터트 홀은 육상 경기장의 남녀흑인 단거리 주자들의 신체를 클로즈업하는 카메라의 눈이 흑인의 정체성을 정신적 기량보다 육체적 역량에 맞추어 상투적으로 확대재생산 해온 대중문화 관행을 면밀하게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100미터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흑인남성 칼 루이스(Carl Lewis)가 질주하는 이미지와 “그가 우아한 빨간 하이힐을 신고 출연한 광고사진”을 비교하며, 그의 “슈퍼-남성미”에서 “관능적인 여성미”의 호출을 기도하는 상투적 관행이 흑인의 인종적 차이와 섹슈얼리티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해 왔음을 짚어낸다(“The Spectacles” 227, 233). 물론 정재승과 김탁환은 서사라에게서 인종을 소환하는 독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소설에서 서 트레이너의 행위는 자기희생적인 견인주의와 영웅적인 이상을 실천하며 그녀의 검은 피부는 독자가 애써 의식하지 않으면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여기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세계 보편성을 더 깊이 문제 삼을 의향이 없다. 다만 작품에서 서사라의 인종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의 인종 관계에서 첨예하게 논쟁 중인 ‘인종 불문주의’(color-blind) 정책 대 ‘인종 우대주의’(color-conscious) 정책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간략히 첨언할 필요가 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더라도 평등한”(separate but equal) 기회를 제공하면 합헌이라고 본 1896년 연방대법원 판결. 거기서 7대1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존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의 “우리 헌법은 인종을 불문한다”라는 견해에서 유래한 이 관점은 대부분의 백인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노선이다. 인종 우대주의 관점은 입학이나 채용과 같은 공적 선발 절차에서 소수자를 배려하는 균형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정책 대립과 관련해, 앤서니 아피아와 에이미 구트먼(K. Anthony Appiah & Amy Gutmann)은 “선량한 사람이라면 인종 불문주의 정책과

인종 우대주의 정책 둘 다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터이고”(132), “세 가지 목표, 즉 인종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흑인 아이들을 위한 인종 롤모델을 만들고,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성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인종우대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이며 이 정책을 통해 언젠가 인종불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131, 133)이라는 절묘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인종 불문주의에 따라 서사라의 개인적 역량만 보고 그녀의 피부색이 표상하는 인종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서사라 개인에게만 좋을 것이다. 반면 인종 우대주의에 따라 서사라 개인의 성취도 널리 모범으로 삼고 그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한 다른 흑인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그녀에게도 득이 될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고통의 양을 가장 많이 분담했던 두 인종집단이 유대인과 흑인이었고 많은 유대계 철학자들이 그들 민족이 당한 과거의 여러 비운에 의거해 고통 받는 인간이라는 문제를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의 이름으로 다각적으로 저술하였다. 유대계 남녀백인 학자들만큼 널리 보편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흑인 학자들도 집단적 고통의 주체로서 흑인의 부당한 삶의 조건에 항의한 많은 연구서를 남겼다. 의도된 배치인지 모르겠으나, 『눈먼 시계공』에 구현된 포스트휴먼 조건에서 사이보그 주체가 고통을 느끼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 흑인 여성 서사라이다. 37퍼센트 인간인 서사라가 기계 몸의 비율이 인권의 임계치인 70퍼센트에 육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포스트휴먼 사회의 테크노 혼종성이 그려내는 ‘정신의 풍경’(paysage moralisé) 속에 사이보그를 위한 진혼곡이 흐르고 있는 아 이러니가 감지된다. 소설의 시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한 미래이지만, 서 트레이너는 섬세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치명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인간 고유의 신체적 능력을 로봇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과 로봇을 매개하는 사이보그로서의 그녀의 주체적 위치는

양 진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대는 비난의 화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반(反)기계 문명 시민 단체들”은 “로봇 전문 방송국인 보노보”의 개국 축하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1: 21), 로봇 미디어를 후원하는 다국적 거대자본은 “오늘은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로보 사피엔스가 첫 걸음을 떼는 날”(1: 29)이라는 축하 메시지에 짐짓 만족해한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연인 희망 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는 로봇 격투기 대회 배틀원 2049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2: 109), 이에 질세라 “시민과학진보포럼”과 같은 친기계 문명 단체들은 이들을 “과격환 생태주의자”라고 폄하하며 “테러와 협박을 일삼는 배틀원 2049 반대자들을 위한 경고” 서한을 보내기도 한다(2: 111). 이와 같은 대립 국면에서 우려했던 대로 사이보그 거리의 상징적 건물인 부영이 빌딩을 겨냥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발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이보그들이 죽고 다치고 거기에 기거하던 서사라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 이 테러 붕괴 사고로 천연 몸 4퍼센트를 더 잃고 67퍼센트 기계 몸이 됨으로써 “겨우 33퍼센트만 인간인 사라에게는 인간적인 감각을 ‘1나노’만큼도 잃고 싶지 않았다”(1: 315). 여기서 우리는 동물을 “자연이 만든 자동기계”(natural automata)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동물은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데카르트의 관점을 떠올리며, 인간과 기계의 혼종적 주체인 서사라도 고통에 반응하는 광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서사라는 눈에 힘을 잔뜩 실은 채 입술을 안으로 말아 넣었다. [...] 사이보그용 진통제 ‘돌핀’은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살점을 찢고 뼈를 잘라도 통증이 없었다. 사라의 기계 몸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인간보다 대여섯 배는 강력한 진통제를 구비해 둔 것이다. 이미 기계로 바뀐 67퍼센트는 고통을 몰랐지만 나머지 33퍼센트는 상처에 더욱 민감했다. 온전히 남아 있는 33퍼센트에는 고통을 인지하는 ‘2퍼센트의 뇌’가 고스란히 포함돼 있으니까. 육체가 10퍼센트

씩 기계로 바뀔 때마다 감각 민감도는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 사라는 가물가물 정신이 흐려지면서도 응급실로 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민선의 설명에 따르자면, 사라는 계속 “3퍼센트!”를 웅얼거렸다고 한다. 천연 몸을 3퍼센트 더 다쳐 기계 몸이 70퍼센트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라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1: 314-16)

그런데, “기계로 바뀐 67퍼센트는 고통을 모르고” “나머지 33퍼센트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2퍼센트의 뇌’가 고통을 인지한다”는 시각은, 첫째 인간과 기계의 병렬적 결합인 사이보그를 인간중심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기인하고, 둘째 뇌신경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가 “데카르트의 실수”라고 부른 “사유하는 정신과 사유하지 않는 신체를 분리해버린”(Descartes’ Error 248-49) 실제이원론의 입장에서 기인하고, 셋째 ‘나는 곧 나의 뇌다’라고 보는 관점, 즉 신체의 물질성보다 뇌의 정보성을 우월한 위치에 두는 포스트휴먼 입장의 한 갈래에서 기인한다. 이 세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일부 중첩되어 있기도 한데,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다른 논문들에서 이 세 입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으므로 이 좁은 지면에 세 비판 전부를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다만 소설의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이 뇌과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뇌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서사라의 고통에 내재된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다마지오는 앞서 인용한 『데카르트의 오류』(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1994)와 『사건에 대한 느낌』(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2000)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느낌의 정체를 『스피노자의 뇌』(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2003)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신체의 뇌에서 정

서(emotion)로 반응해 느낌(feeling)으로 기록되는 기제를 도식으로 밝히고 “정서와 느낌을 하나로 말하면 바로 [스피노자의 개념인] 정동(affects)이 된다”(133)는 맥락을 신경생리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다마지오에 따르면, “정신과 신체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뇌 자체나 뇌를 제외한 신체(the body-proper)가 아니라 신체의 뇌(the body’s brain)이다. ... 정신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구성한다”(206). 쉽게 말해, 정신 안에서 의식되는 내용물을 채워주는 신체가 있기에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와 같이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지 않고 뇌와 신체도 따로 구분하지 않는 다마지오의 포괄적 일원론에 동의한다. 협의의 뇌는 두개골 속에서 보호를 받는 대뇌, 소뇌, 연수, 중뇌로 구성된 한 덩어리 기관을 지칭하겠지만, 필자는 두개골 속의 기관뿐만 아니라 신체로 뻗어 나가 있는 척수와 말초신경계를 포함하는 전체 신경계를 가리키는 광의의 뇌를 지칭한다.

다마지오가 개념화하는 신체의 뇌와 넓은 의미의 뇌를 서사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그녀가 느끼는 통증은 33퍼센트의 인간 몸, 67퍼센트의 기계 몸, 그리고 그녀의 뇌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생성되는 복합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녀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뇌는, 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인간 몸에 연결된 말초신경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계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자극을 통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통증을 느낀다. 그녀의 의식이 지각하지 못하는 0.5초 미만의 시간 동안 그녀의 뇌가 통증을 체험하는 이 기제를 머수미의 말을 빌어 “정동의 자율성이 가상계에 참여하는”(Parables 35) 실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서사라의 신체가 서로 다른 재질의 둘이 하나로 접합된 사이보그 신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의 뇌가 두 배 이상으로 강렬하게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33퍼센트의 유기체와 67퍼센트의 기계가 그녀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 다수의 접합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접합면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그녀의 뇌에서 그 접합면의 수만큼

증폭된 강도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접합면을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라투르가 말한 인간과 비인간을 매개하는 접경 지대로 볼 수 있다. 신체를 매개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기체가 정동의 특성이라면(*Parables* 27-8), 서사라의 사이보그 신체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 머수미, 다마지오가 다 같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신체가 할 수 있는 것”(Politics of Affect 117)을 더 강렬하고 더 치밀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잠재하고 있다. 서사라가 자신의 혼종적 신체에 잠재된 가능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의 응급 수술을 “인권”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한 것은 자신의 사이보그성을 기능적으로만 수용하는 인간중심적 도구주의에 나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체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휴먼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기계 몸이 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위력만을 의식할 뿐 자신의 혼종적 존재성과 사이보그 신체에 잠재된 정동적 강도를 읽어내지 못한 서사라의 한계는 그렇게 설정한 한국남성 공저자의 한계이자 피부색의 정치적 함의를 읽지 않으려는 인종 불문주의의 한계와 상통한다. 서사라가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고통의 주체로서의 30퍼센트 마지노선에 그토록 민감했다면, 통각이 뇌 안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신체의 말단인 피부 조직에 위치한 통점에서 시작되어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각 문화론’은 다마지오의 느끼는 뇌 이론 및 머수미의 정동 이론과 상동적 관점에서 감정에 관한 인간의 정신활동을 뇌의 중추활동으로 국한시키는 입장에 반대한다. 『생각하는 피부: 촉각문화론』의 저자 미나토 지히로에 따르면, 촉각문화 모델에서 “피부는 단순한 자루도 중추를 섬기는 말단도 아니다. 피부와 뇌는 계층적인 관계가 아닌 기하학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피부는 종속적이지 않다. 피부를 뇌의 확장으로서, 뇌를 개겨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24)는 것이다. 미나토의 촉각문화론은 피

부에서 벌어지는 두 사태인 “통증의 도상학”(문신)과 “색소정치학”(인종 차별)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통각이 발생하는 피부를 살펴보거나 의식하는 것은 서사라에게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녀는 설령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피부색이 흑인을 표상한다는 문화적 고정관념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서사라가 피부에서 오는 생리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둘 다를 지각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 1984)에서 아무런 통증 없이 눈 주변의 피부를 절개해 인공 안구를 적출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T-800이나 <엑스 마키나>(Ex Machina, 2014)에서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인공 피부를 몸에 두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바(Ava)와 달리, 그녀는 흑인과 여성으로서의 인간 신체의 점차적 상실이 갖는 정치윤리적 의미를 각성해야 하는 사이보그 주체이기 때문이다.

III. 21세기 테크노 혼종성의 단면과 극단

서사라가 SF 장르의 단골손님인 기계와 유기체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사이보그라면, 『눈먼 시계공』에는 또 하나의 가공할만한 테크노 혼종적 존재가 등장한다. 전 세계의 32강 로봇이 출전한 배틀원 2049에 우승 확률 100분의 6이라는 약체로 참가하여 8강, 4강에서 “미친 듯이” 선전을 펼치고 마침내 결승전에서 우승 확률 100분의 45인 도쿄 대표 무사시를 꺾고 챔피언이 된 서울(한국) 대표 글라슈트가 바로 그다. 글라슈트는 “1미터 95센티미터, 320킬로그램”(1: 39)의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알파 모터와 베타 모터가 263개나 달린 매우 유연한 [물체를 가지고 있고] 눈과 무릎 등에 부착된 4대의 카메라[가] 0.001초마다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대응 동작을 조절하고, 하체는 무려 5G의 압력에도

버티도록”(2: 162) 제작되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13년에 개발한 약 180센티미터, 80킬로그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비디오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넘는 동작까지 구현했듯이, 로봇공학의 기술적 진화 속도를 참작하면 소설 속의 글라슈트의 제원은 개연성이 차고 넘치는 포스트휴먼 산물이다. 그런데 글라슈트의 테크노 혼종성이 가공할만큼 묵시록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글라슈트의 개발자인 최볼테르 소장은 지상 최강의 로봇을 꿈꾸는 야심가이다. 하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장벽에 부딪힌 그는 자신의 연구팀에 뇌-로봇 인터페이스 분야의 촉망받는 신경과학자인 노민선을 끌어 들여 극비리에 인간의 뇌를 격투 로봇에 장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최 소장과 노 박사는 “프로그램만으로는 강화하기 힘든 [로봇의] 공격력을 ‘분노하는 뇌’를 통해 확보”(2: 322)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 두뇌 탈취 음모를 결행한다. 이에 욕망과 좌절에 젖고, 증오와 분노에 찌들어 사는 변두리 격투기 선수 변주민을 최적의 표적으로 삼는다. 인간의 뇌에 저장된 기억과 무/의식을 로봇의 정보처리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에 전송하는 테크놀로지는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이 2040년 이전에 개발될 것이라고 호언했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 이론가 헤일스는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모라벡의 꿈”(284)이 자신을 포스트휴머니티의 연구로 이끈 “악몽” 같은 징후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바이런 리스(Byron Reese)에 따르면, 컴퓨터가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초보적인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철학계와 과학계의 석학들 사이에 의식의 정의에 관해서조차 전혀 합의된 바가 없고(244-56), “인간은 의식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신비주의라는 이론”(257)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의식이 있는 컴퓨터’에 가장 근접하는 시나리오는 인간의 두뇌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합병설(merge)이다(240). 뇌과학자 정재승과 이야기꾼 김탁환이 연합하여 구상한 SF 리얼리티도 합병설에 가까

운 것인데 그 파급효과는 모라벡의 꿈보다는 헤일스의 악몽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 이유는 로봇공학자 최볼테르와 신경과학자 노민선이 인간 변주민의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 변주민의 ‘느끼는 뇌,’ 특히 그의 ‘화내는 뇌’라는 순전히 부정적인 정동 기제를 이용했다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 즉 변주민을 극도의 분노 상황으로 몰고 간 직후 살해하여 분노의 기억으로 가득 찬 그의 뇌를 꺼내 글라슈트의 기계 몸속에 비밀리에 제작해둔 강철구 안에 이식함으로써, 격투기 선수 변주민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과 그 강도를 글라슈트의 공격력으로 재현하는 자극 통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8강, 4강, 결승에서 자기보다 강한 상대 로봇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학소설의 서사전략에서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인간과 로봇의 증오나 분노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다룰 때 두 공저자가 화자로 직접 나서지 않고 작중 인물이 작성한 기록물을 통해 말하는 일종의 액자소설 장치이다.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 노민선의 생부로 밝혀지는 조운상이라는 인물은 “뇌를 나노 단위로 관찰하여 병의 원인을 밝힌다”는(1: 139) 특별시 뇌 통합 병원에서 “앵거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앵거 클리닉 개원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병원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신는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인간에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모든 인간은 분노를 경험하지만 그 빈도수는 주 1~2회에서 하루에 10회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분노의 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성이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여성보다 무려 27배 높다. 분노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는 시대별로 달라지는데 예컨대 ‘교통 체증에 대한 분노’가 줄어든 반면 로봇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분노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조 원장은 “분노라는 병은 모든 악을 압도한다”는 세네카의 말을 “금과옥조로 믿고” 또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길을 나란히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 둘의 발꿈치를 문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매일의 교훈으로 삼으면서도, “분노는 불행한 것이지만,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마

음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라는 복선이 깔린 듯한 양가성을 피력한다(1: 286-91). 차세대 로봇 연구 센터의 최볼테르도 글라슈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일들과 심경을 자신의 맥 9000 컴퓨터 안에 문서로 남겨 둔다. 그 중 “글라슈트와 나”라는 제목의 파일은 “인간의 폭력성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거친 문장들이 속사포처럼 독백하듯 나열된 것으로 볼 때, 기고용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았다”고 나중에 은석범 검사가 회고한다. 이 문서에서 최소장은 “로봇이 인간을 따라 오는 날, 로봇이 인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날”을 기원하며 “수공 시계를 만드는 장인처럼, [자신]도 ‘결작’ [로봇]을 탄생시키기 위해 평생을 쏟고 싶다”고 욕망한다. 그는 노 박사가 글라슈트 개발팀에 합류하던 날, 그녀에게 “인간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오냐고, ... 글라슈트에게 잠재적인 힘까지 끌어낼 수 있는 폭력성을 주입하려면 인간 뇌의 어느 부위를 알고리즘화해야 하냐고” 묻는다. 노민선의 대답은 “가장 폭력적인 사람은 가장 끔찍한 공포를 경험한 사람”인데 “폭력은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죽음을 피하려는 안간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255-57). 분노와 스트레스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조 원장의 진단은 일찍이 스피노자가 인간의 정동(affects)을 기쁨, 슬픔, 욕망의 세 군으로 나누고 슬픔 군에 속하는 증오가 욕망 군에 속하는 분노(anger)를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자로 보았던 관점에 호응한다. 스피노자가 분류하는 슬픔(sadness) 군에 속하는 거의 모든 정서 반응—증오(hate), 혐오(aversion), 공포(fear), 절망(despair), 후회(remorse), 연민(pity), 분개(indignation), 멸시(scorn), 자기비하(humility), 가책(repentance), 낙담(despondency), 치욕(shame)—이 스트레스라는 현대인의 병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폭력을 매개로 분노와 공포를 연결시킨 노민선 박사의 진단 역시 오늘날의 신경학자들이 풀어내고 있는 뇌의 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마지오는 “공포와 분노”라는 정서가 짝을 이루어 함께 촉발된다는 점

과 이 촉발이 일어나는 뇌 속의 인터페이스가 아미그달라(amygdala)라고 명명된 호두 모양의 편도체임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Looking 59-62). 그런데 최볼테르가 던진 질문에는 이처럼 ‘느끼는 뇌’의 기체에 대한 일반적 수용 수준을 넘어 금기의 치명성에 이르는 내용이 개입되어 있다. 바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로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기]가 일러 준 대로 행동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만 하는 글라슈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2: 257)는 물음이다. 최 소장의 욕망은 조운상 박사가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부른 정동과 노민선 박사가 “죽음을 피하려는 인간 힘”이라고 부른 정동과 연동되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포스트휴먼 윤리학의 최종 관문인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로 우리를 이끈다.

최볼테르 소장은 게임용 격투 로봇으로 개발된 글라슈트에 대해 유별난 애착을 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로봇인 글라슈트에게 “나다, 네 주인 최볼테르! 최볼테르가 명령한다”(2: 247)라며 엄한 목소리로 지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글라슈트를 자신의 자식인 양 여기며 “어린 아이 달래듯 부드럽게 이야기들”(2: 241) 할 때도 많다. 최 소장은 글라슈트가 자신을 주인 이상, 즉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한 것이다. 그런데 글라슈트의 몸체에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해당한 인간의 뇌가 장착된 덕분에 배틀원 2049에서 극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지만 바로 같은 이유로 인해 글라슈트의 몸짓과 행동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징후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한다. 두뇌 탈취 범행부터 제노사이보그들의 인간 공격, 반기계 테러 단체의 반격에 이르기까지 얽히고설켜 사건을 풀어나가던 은석범 검사가 마침내 차세대 로봇 연구 센터로 수사망을 좁히며 최볼테르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은석범은 글라슈트가 자신의 창조자인 최볼테르의 육성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향해 공격성까지 띠는 조짐을 목격하게 된다. 석범은 “글라슈트의

눈에서 비웃음과 살기를 읽어 [낸]다”(2: 242). “이상 행동!”이라는 네 글자가 석범의 머리를 스치는 찰나에 글라슈트는 로봇과 시합을 하듯 석범의 기계발을 뜯어내어 버리고 볼테르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친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율을 무시한 것이다”(2: 249).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의 로봇공학 삼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에드워드 제임스(Edward James)가 언급했듯이, “아시모프는 그가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라고 명명한, 로봇이 그들의 창조자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이 강박증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적 대응의 일환으로 로봇 이야기를 썼다”(41)고 알려져 있다. 물론 아시모프 자신이 쓴 소설들 중에도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는 글들이 왕왕 포착되듯이, 그의 예방 조치는 SF 장르 안에서조차 절대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예컨대 <엑스 마키나>에서 인공지능 로봇 개발자인 네이든(Nathan)은 자신이 만든 휴머노이드 펌봇(fembot)인 쿄코(Kyoko)와 에이바의 공격을 받아 최후를 맞게 되고,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복제인간 레플리컨트의 창조자인 타이렐 박사(Dr. Tyrell)가 자신의 양자와도 같던 로이(Roy)의 손아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는다. 다니엘 윌슨(Daniel H. Wilson)이 약간의 장난기를 발동해 시사했듯이(14-16), 로봇은 아시모프의 바람과는 달리, 인간의 충실한 하인이 아니라 인간에게 “붕기할 적”이 될 잠재성이 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기술과학의 미래상과 극단적 단면을 미리 보여주는 SF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 글라슈트의 이상 행동을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와 연결 짓는 서사전략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불안과 윤리적 간섭의 교차를 버거운 일상으로 접해야 하는 21세기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글라슈트가 최 박사를 공격하는 순간으로 되돌아가 그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 로봇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공저자의 한계가 엿보인다. 최볼테르는 로봇을 인간의 충직한 하인으로 프로그램한 아시모프의 삼원칙을 과신한 탓인지, 글라슈트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글리슈트는] 상대가 인간인 경우에는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2: 238)다고 항변하며 “로봇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위험하네 멍청하네 지껄인다니까. 로봇보다 위험하고 로봇보다 멍청한 게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인간이야! 로봇 범죄 90퍼센트 이상이 그 로봇을 구입한 인간의 지랄 같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2: 240)며 인간을 겨냥한 노기를 내뿜는다. 그런데 최볼테르의 로봇 옹호론이 인간 비판론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 (최볼테르의 무의식이 정동적으로 직감했는지 몰라도) 그의 의식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로봇의 신체에 인간의 뇌가 이식된 순간 글리슈트는 더 이상 아시모프의 삼원칙을 준수해야 할 로봇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아쉽게도, 최볼테르의 판단 착오는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로봇의 감정과 의식을 인간의 그것에 귀속시킴으로써 로봇을 인간화시키는 인간중심적 선회로 비화된다.

2018년 4월 《사이언스》에 실린 싱가포르의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증오 회로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증오의 기억은 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며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신에 떨고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복수심에 불타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오 기억은 우리 대뇌에 아로새겨져 평생을 같이 간다. 온전히 복수를 마치고 분노와 증오가 사그라지는 순간, 비로소 증오 기억은 오래된 기억으로 잊힐 수도 있으리라. [...] 언젠가 증오 회로의 실체가 완전히 벗겨지고 간단한 칩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로봇에게도 복수심을 주입할 수 있다면 인간은 과연 로봇에게 증오 회로를 선사할까? 그런 날이 오면, 로봇 격투기 대회는 기술의 향연이 아니라 질퍽한 감정의 수렁으로 뒤바뀔 것이다. 아마도 복수심에 불타는 로봇들이 제일 먼저 공격할 대상은 인간이리라. 그들을 탄생시킨 창조주이나 그들이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니까. (2: 360-62)

여기서 소설의 공저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라는 가까운 미래

의 테크놀로지를 인간으로부터 로봇에게 일방향으로 주입되거나 기입되는 공정으로 여김으로써 로봇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 글라슈트가 체현하는 테크노 혼종성의 징후를 더 치열하게 상상하지 않는다. 배틀윈 2049에서 우수한 글라슈트는 보통의 로봇이 아니라 로봇에서 사이보그로 변신한 혼종체이다. 다시 말해, 글라슈트는 인간의 결여나 상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즉 보철공학적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사이보그가 아니라 무한한 잠재성을 지녔다는 인간의 뇌라는 변수가 첨가됨으로써 기계에서 인간 방향으로 역-형성된 특이한 사이보그이다. 인간과 기계라는 이분법적 위계질서가 해체되고 기술과학의 도움으로 테크노 혼종적 역방향 사이보그가 된 글라슈트는 배틀윈 2049에 출전한 다른 로봇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역량을 로봇에게 주어진 테크노 혼종적 기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눈먼 시계공』의 결말에서 사이보그 글라슈트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를 수반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결국 인간의 충격에 완전히 파괴된다. 김탁환과 정재승은 소설의 서두썸에서 마치 작가적 개인인 것처럼 “SF 소설가들은 닥쳐선 안 될 미래를 막기 위해 소설을 쓴다”(1: 32)라는 메타픽션적 진술을 흘린다. 흑인-사이보그 서사라에 이어 로봇-사이보그 글라슈트의 죽음이 “닥쳐선 안 될 미래”가 되어야 한데 과학자와 소설가(인문학자)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사라나 글라슈트와 같은 테크노 혼종적 포스트휴먼 주체가 현존할 미래가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IV. 포스트휴먼 위기 징후를 통해 미리 보는 미래

SF 장르의 예언적 측면은 과학적 잠재성을 시험한다. 그래서 SF 소설은 현실 비판적인 유토피아 네러티브로 읽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과학적 잠재력의 실현을 가늠하는 미래 보고서로 읽을 수 있다. 구글의 정보력과 자금력의 지원을 받는 레이 커즈와일은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혼성적 두뇌의 탄생 ‘이후’를 전망하는 한 강연에서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면, 우리는 더 재밌고, 더 섹시하고,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한다(Miles). 감각적이고 감성적인—즉 정동적 요소가 강한—커즈와일의 표현은 인간과 기계의 합병에 대한 기술과학적 낙관론 이상의 무엇을 암시한다. 앞 절에서 간략히 인용한 바이런 리스도 그의 저서 『4차 시대』(*The Fourth Age: Smart Robots, Conscious Computers, and the Future of Humanity*, 2018)의 서문을 통해 커즈와일과 유사한 낙관적 관점에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앤드류 응(Andrew Ng), 페드로 도밍고스(Pedro Domingos) 등을 인공지능의 도래를 선도하는 전문가로 소개한 바 있다(ix-xi). 본 논문의 1절에서 고찰한 대로, 과학이 본디 혼종적이었다고 보고 과학과 철학이 함께 공생적 진로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브라이언 머수미,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혼종적 집합체가 사회기술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론화한 브뤼노 라투르, 인간-기술 앙상블이라는 혼종적 개체화를 통해 포스트휴먼 잠재력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 질베르 시몽동과 같은 과학기술학자들도 대체로 인간과 기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과학 기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이들과 달리, SF 장르의 작가나 영화감독은 가까운 미래의 과학적 풍경을 그리 낙관적으로 재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눈먼 시계공』의 공저자는 작중 인물인 노민선의 입을 빌려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학이 초래한 새로운 계급 갈등을 지적한다. 앞 절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 노민선은 최볼테르의 차세대 로봇 연구 센터에서 뇌-로봇 인터페이스 연구에 매진하는 신경과학자인데, 2049년 6월 29일자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나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문: 20세기 후반기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여성주의」를 발표한 지 올해로 64년이 지났다”고 운을 뗀 뒤, 21세기에 접어들어 인간은 해러웨이가 전망한 대로 기계와 유기체의 경계를 허물고 로봇과의 공생을 꿈꾸며 “스스로 사이보그로 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1: 328-29). 그런데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아랑곳없이, 2049년을 사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책임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유전자 조작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갖게 된 우성 인간과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열성 인간이 생물학적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때 성형 수술을 받은 우성 인간 ‘연예인’들과 그렇지 않은 ‘대중’들이 생물학적 계급 사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이보그와 자연인이 기계론적 계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윤리적 의구심과 함께 “사이보그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자연인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깊은 우려로 기고문을 끝맺는다(1: 332).

이처럼 허구의 여성 과학자 노민선의 시선에 포착된 사회적 갈등과 편견의 실례는 『눈먼 시계공』이 그려내는 테크노 혼종적 인물들의 일상에 산재해 있다. “2028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물결’ 운동은 병들어 가는 20세기 공룡 도시 서울을 ... 21세기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1: 112), 거대자본의 위력으로 도시 공간을 통째로 디자인하는 데 성공한 “2049년 서울이라는 정글은 테크노 카멜레온의 천국”이라는 명성을 얻는다(1: 113). 이에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이들은 꼭 한 번 서울특별시 관광을 꿈꾼다”고 한다(1: 109). 하지만 많은 SF 장르에서 전형화되어 있는 공간적 양극화 현상은 서울과 비서울 간에도 이미 불가역적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 현상은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양극화”로 연장되고, 다시 “값비싼 로봇에 기대어 게으름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자들”(1: 114-15)이 모여 사는 서울과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민들, 미등록 기계 팔이나 기계 다리를 부착했다가 불구가 된 극빈자들, 유전적

질병에 고통 받는 돌연변이들”(1: 117)이 몰려들어 거주하는 이른바 생태주의 주변 마을로 나누어져 악순환 된다.

이런 와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크노 혼종적 변화의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만연해 있음이 포착된다. “부자들은 육체적 능력을 키우거나 정신적 콤플렉스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인공장기를 이용”한다. 예컨대 로봇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신흥 부호가 된 찰스 박터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엔 150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단신이었으나 하반신을 세 개의 기계 다리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은 후 2미터 50센티미터가 족히 넘는 거인의 면모를 과시한다. “협오감을 유발하는 장기 사용은 특별시 연합법으로 금지[되어] 다수(多手)나 다족(多足) 그리고 다두(多頭)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찰스의 다용도 변신 다리는 ‘기계봉’으로 등록되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1: 25)는 식이다. 이런 부작용과 변칙과는 별도로, 2049년 서울에는 해묵은 인간중심적 형태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떤 테크노 혼종적 인물들의 경우, “파손 부위에 인간의 신체 형상을 재현하지 않고, 동물의 형상이나 때론 실제 동물의 신체 일부를 이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연 몸과 기계 몸, 그리고 동물의 몸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이한 형상을 특별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1: 65). 즉 인간을 더 강화된 혼종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테크놀로지는 완비되었지만, 인간 형상의 사이보그와 동물 사이보그를 차별화하는 인간중심주의 관행까지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의 주인공 격인 검사 은석범과 형사 남앨리스는 아시아계 및 백인 혼혈 사이보그로 등장하고 무술 트레이너 서사라는 흑인 사이보그로 등장하는데 반해, 소설에서 인간의 뇌를 탈취하는 조직범죄 집단은 이름부터 외국인을 뜻하는 제노사이보그(Xeno-Cyborg)로 배척당하고(1: 65) “월숭이의 하반신을 가진 침피보그(Chimpyborg),” “말의 하반신을 가진 에쿠사이보그 352(Equusyborg 352),” “개의 하반신을 가진 사이보그 커나이보그(Caniborg),” “소의 하반신을 가진 사이보그 타우러보그(Tauruborg)

MNE”라는 네 유형의 반인반수 사이보그로 차별받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테크노 혼종적 사회가 낳은 포스트휴먼 계급적 위기 징후에 은밀하게 병행하는 부수적 쟁점이 하나 더 있다. 『눈먼 시계공』은 이 쟁점을 표면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독자는 소설의 행간을 읽으면서 천연 몸의 인간, 유기체-기계 혼종적 사이보그, 격투용 로봇 간에 물리적 역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해러웨이가 선언한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가 흐려진 자리에 인간과 사이보그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사이의 역량의 격차가 돌아난 것이다. 물론 이 격차를 향한 경종은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위시하여 할리우드판 SF 장르에서 식상하리 만치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에 개봉된 몇몇 작품은 더욱 픽진성 있는 설정으로 과거에 느꼈던 섬뜩한 기운을 한층 더 실감 나게 한다. 앞서 언급한 <엑스 마키나>에서 거대 검색엔진 기업의 CEO로서 철저한 보안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을 개발 중인 네이든은 현생인류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언젠가 에이아이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평원에서 발견한 화석 유골을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볼 거야. 조야한 언어와 도구를 쓰며 먼지를 뒤집어쓰고 사는 직립 보행 유인원. 결국에는 멸종하고 만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겠지.” 네이든의 냉소적인 예언이 실현되는 시점은 에이아이들에 의해 다윈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 인공도태(Artificial Selection)라는 금석문으로 영구 대체되는 기원일일 것이다. 얼마 전 개봉된 <업그레이드>(Upgrade, 2018)에도 BCI 테크놀로지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인간-컴퓨터 혼종체가 선한 인간들을 무력화시키는 암울한 장면이 재현된다.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보통 사람 그레이(Grey)의 뇌에 스템(STEM)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이 이식된 후, 그는 인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사이보그로 격상되지만 동시에 머릿속 인공지능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기로 전략하고

만다. 몰리 프리먼(Molly Freeman)이 설명하듯, <업그레이드>의 “결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Freeman), 인간과 기계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영화 속의 허구일 때에만 허용되는 현실인지 곱씹어볼 시점에 이르렀다.

끝으로, 『눈먼 시계공』에서 인간-기계 상상물의 최악의 버전을 읽어내어 포스트휴먼 혼종성의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현생인류와 포스트휴먼 이종 간의 치열한 경쟁을 다룬 또 다른 한국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SF 장르가 전망하는 포스트휴먼 위기 징후의 인종정치학적 맥락을 덧붙이고자 한다.

“강화인간 중. 우리가 암호명 ‘천사’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 마그누스. 이 새로운 인간 종은 보통 사람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경쟁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지능이 높은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경쟁사회를 살아가자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나?”

[...]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있어. 한쪽은 안보기관들이야. 그들은 지금의 체제 안에서 이 지능 강화기술을 이용하고, 되도록 독점하려고 하지. 다른 한쪽은 강화인간들이야. 이들은 인류 공동의 운명을 걱정해. 그래서 이 기술이 사회를 파괴하기 전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하지, 자, 마리노. 내 질문은 이런 전쟁이 있다면 자네는 누구 편에 서겠나?”

[...]

마리노는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근심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뇌 인지과학과 약리학만 알면 되었던 실험실의 안정감이 그리웠다. 병원과 실험실을 한 발짝만 벗어나도 이런 정치의 바다가 있었고 이 바다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혼란의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바닷속에서 솟아난 물건에 해조류가 엉켜 있듯이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는 것들에는 언제나 정치가 엉켜 있었다. 이데올로기의 편린들이 온갖 거짓을 거느리고 솟아올라 의기양양하게 으스대면서 실제의 사실에 뒤섞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가치와 정체성이 뒤흔들렸다. (이인화, 『지옥설계도』 44-49)

인용문에 암시되어 있듯, 보통의 지능과 체력을 지닌 현생인류와 특별하게 탄생한 서사라, 제노사이보그, 글라슈트, 그레이-스텝, 호모 사피엔스 마그누스와 같은 포스트휴먼 혼종체가 거침없이 동거할 미래 사회는 원론적으로 경쟁불가 사회일 것이다. 경쟁불가 사회와 불평등 사회는 조금 다르다. 후자가 법률상의, 이론의 영역이라면 전자는 사실상의, 실천의 영역이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경쟁을 상상할 필요가 없거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SF 작가들은 인간보다 지적·신체적 역량이 월등한 존재가 인간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포스트휴먼 불안을 극화하며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양분되는 담론의 길목에서 설익은 윤리적 다짐 또는 묵시록적 실어를 반복해왔다. 왜일까? 짧게라도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대부분의 SF 작가들이 백인 남성이고 그중에서도 WASP 중산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통계적 사실에 근거하여(James 27 재인용), SF 장르의 구조화 과정에 과학과 미학뿐만 아니라 백인 남성 고유의 인종정치학이 작동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백인 남성의 입장에서 가장 안일한 인종정치학적 타협점은 막강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짜내 지구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역량 있는 백인남성 파워엘리트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구도일 것이다. 그와 같은 상투적 설정이 너무 진부하다면, 백인 남성의 심층 심리를 소환해 정신분석학적 가설 하나를 세울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최근의 SF 장르에서 드러나듯, 기술과학적 심의를 거쳐 새롭게 재편되는 권력 관계와 갈등 구조에서 여러 유형의 포스트휴먼 혼종체가 득세하게 되면서, 서구백인으로 대표되어온 남성 집단이 종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로 강등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험한 적 없는 상대적 약자라는 계급적 위치를 SF 스크린 위에서 피학적으로 감상하고 상상함으로써, 백인남성 주체는 현실에서의 인종적 위기를 보강하는 빌미와 말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스트휴먼 조건이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그들을 위한 대리만족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눈먼 시계공』에서 최볼테르가 죽고, <엑스 마키나>에서 네이든이 살해당하고, <업그레이드>에서 그레이가 생중사에 빠지는 명백한 이유를 이들이 테크노 혼종적 존재와 맺는 특수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테크노 혼종성이 창출하는 포스트휴먼 미래의 위기 징후는 (백인) 남성성의 퇴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Works Cited

- 김재희. 「시몽동과 포스트휴먼 기술문화」. 『포스트휴먼의 무대』. 이화인문과학원 & LABEX Arts-H2H 연구소 엮음. 파주: 아카넷, 2015. 10-34.
- 김탁환, 정재승. 『눈먼 시계공』. 서울: 민음사, 2010.
- 미타토 지히로 『생각하는 피부: 촉각문화론』. 김경주, 이종욱 옮김. 서울: 논형, 2014.
- 이인화. 『지옥설계도』. 서울: 해냄, 2012.
- Al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1999.
- Appiah, K. Anthony, and Amy Gutmann. *Color Conscious: The Political Morality of Race*. Princeton: Princeton UP, 1996.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 Blade Runner*. Dir. Ridley Scott. Warner Bros. Pictures, 1982.
- Blade Runner 2049*. Dir. Denis Villeneuve. Warner Bros. Pictures and Sony Pictures Releasing, 2017.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Malden: Polity, 2013.
- Damasio, Antonio.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enguin, 1994.
- _____.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Orlando: Harcourt, 2003.
- Dick, Philip K.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New York: Ballantine, 1996.
- Elam, Michele. *The Souls of Mixed Folk: Race, Politics, and Aesthetics in the New Millennium*. Stanford: Stanford UP, 2011.
- Ex Machina*. Dir. Alex Garland. A24 and Universal Pictures, 2015.
- Freeman, Molly. "Upgrade Ending Explained: What Really Happened with STEM." *Screen Rant*. 1 June 2018. Web. 15 Sept. 2018.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P, 1993.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s.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P, 1994. 392-403.
- _____. "The Spectacle of the 'Other'."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Ed. Stuart Hall. London:

- Sage, 1997. 223-79.
- Haraway, Donna.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 *The Haraway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7-45.
- Hayles, N. Katherine.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 of Chicago P, 1999.
- James, Edward. "Yellow, Black, Metal and Tentacled: The Race Question in American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Social Conflict and War*. Ed. Philip John Davis. Manchester: Manchester UP, 1990. 26-49.
- Latour, Bruno.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Harvard UP, 1999.
- _____.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Harvard UP, 1993.
- Minority Report*. Dir. Steven Spielberg. 20th Century Fox and DreamWorks Pictures, 2002.
- Moravec, Hans.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Cambridge: Harvard UP, 1988.
- Massumi, Brian.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Duke UP, 2002.
- _____. *Politics of Affect*. Cambridge: Polity, 2015.
- Miles, Kathleen. "Ray Kurzweil: In the 2030s, Nanobots in Our Brains Will Make Us 'Godlike'." *Huffington Post*. HuffPost News, 26 Oct. 2017. Web. 26 Aug. 2018.
- Reese, Byron. *The Fourth Age: Smart Robots, Conscious Computers, and the Future of Humanity*. New York: Aria, 2018.
- Spinoza. *Ethics*. Trans. Edwin Curley. London: Penguin, 1996.
- The Terminator*. Dir. James Cameron. Orion Pictures, 1984.
- Upgrade*. Dir. Leigh Whannell. OTL Releasing and Blumhouse Tilt, 2018.
- Wilson, Daniel H. *How to Survive a Robot Uprising: Tips on Defending Yourself against the Coming Rebellion*. New York: Bloomsbury, 2005.

- 논문 투고일자: 2018. 10. 26
- 심사 완료일자: 2018. 12. 10
- 게재 확정일자: 2018. 12. 13

Abstract

Techno Hybridity and Symptoms of the Posthuman Crisis Seen through the Scientific Novel *The Blind Watchmaker*

Junyon Kim
(Hongik University)

The term “hybridity” had regeneratively been conceptualized in postcolonial studies, cultural studies, and the discourse of the African diaspora. I attempt to bring the complex notion of hybridity to the mainstream discourse about technoscience and posthumanity.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critical bridge to connect the minority criticism and a mainstream field of discourse, I draw on Brian Massumi and Bruno Latour. Paying attention to Massumi’s persistent sense of symbiotic activities between science and philosophy and Latour’s rigorous observation of the sociotechnical mediation of humans and nonhumans, I contend that hybridity plays a further defining role in the making of a variety of collectives in the posthuman condition. With the help of those scholars’ theoretical insight, I analyze a Korean scientific novel, *The Blind Watchmaker*.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blematics of its techno-hybrid characterization, I discuss the ways in which techno-hybrid subjects face, negotiate, and succumb to the posthuman crisis.

Key words

hybridity, technoscience, cyborg, posthumanity, SF novel